



미 증시, 연준의 긴축 강화 불안으로 급락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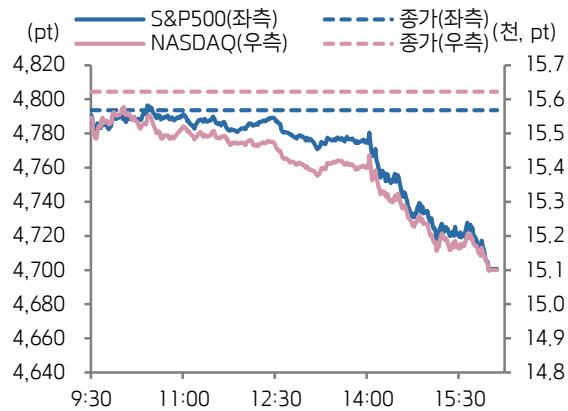
5일(수) 미국 증시는 장 초반부터 시장 금리 상승 경계감이 지속된 가운데, 12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연준의 긴축속도 강화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급락세로 마감(다우 -1.07%, S&P500 -1.94%, 나스닥 -3.34%, 러셀 2000 -3.3%).

의사록에서는 “금리 인상을 더 이른 시기 혹은 더 빠르게 인상할 필요할 수 있다”고 대다수 위원들이 언급했으며 기준보다 빠른 시기에 대차대조표를 축소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언급. 의사록 공개 전 -0.5% 제한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던 S&P500 지수는 낙폭을 확대하며 장중 저점에서 마감(-1.9%). 장기물 금리가 1.7%를 상회하며 테슬라(-5.4%), 마이크로소프트(-3.8%), 알파벳(-4.6%), 애플(-2.7%) 등 대형 기술주들의 낙폭이 가장 커고, 의사록 공개 전 강세 흐름을 보이고 금융(-1.3%), 산업재(-1.0%) 등 경기 민감 업종들도 하락 전환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업종별로 전부 하락한 가운데, 부동산(-3.2%), IT(-3.1%), 통신(-2.9%)의 낙폭이 커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5.8%), AMD(-5.7%) 등 큰 폭 하락하면서 3.2% 하락. 한편 월마트(+1.4%), 엔손모빌(+1.2%), 화이자(+2.0%) 등은 상승하며 필수소비재(0%), 유ти리티(0%), 에너지(-0.1%)의 낙폭은 제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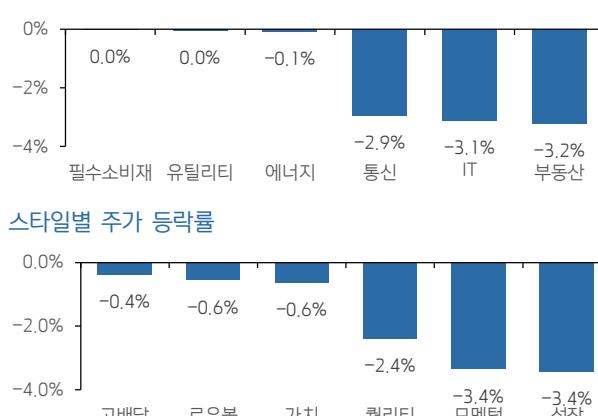
개장 전 발표된 ADP 민간고용자수는 80.7 만명(예상 +40 만명, 전월 50.5 만명)으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 12월 미국 마켓 서비스업 PMI는 57.6pt(예상 57.5pt, 전월 58.0pt)로 시장 예상보다 소폭 부진.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700.58	-1.94%	USD/KRW	1,196.89	+0.23%
NASDAQ	15,100.17	-3.34%	달러 지수	96.19	-0.07%
다우	36,407.11	-1.07%	EUR/USD	1.13	+0.22%
VIX	19.89	+17.62%	USD/CNH	6.38	+0%
러셀 2000	2,194.00	-3.3%	USD/JPY	116.10	-0.05%
필라. 반도체	3,879.87	-3.22%	채권시장		
다우 운송	16,344.15	-1.42%	국고채 3년	1.907	+2.3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367	+4bp
Eurostoxx50	4,392.15	+0.56%	미국 국채 2년	0.822	+6.2bp
MSCI 전세계 지수	758.43	+0.2%	미국 국채 10년	1.695	+4.7bp
MSCI DM 지수	3,248.12	+0.21%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34.95	+0.12%	WTI	77.18	+0.25%
MSCI 한국 ETF	76.18	-1.94%	금	1810.4	-0.2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94%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63%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54%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00.5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 우려에 따른 안전자선호심리 증폭 가능성
2. 원/달러 환율 1,200 원대 진입 불안에도, 오버슈팅 인식 성 달러 매도 물량 출회 여부
3. 금리 변화에 민감한 성장주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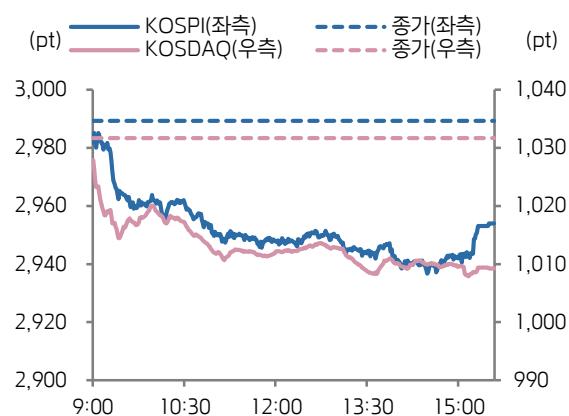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인상 이외에도 양적긴축(QT)이 돌발성 변수로 등장하면서 혼란이 가중된 모습. 양적 긴축은 지난 12 월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의장이 언급하긴 했지만, 시기에 관한 언급은 없었으며, 당시 금융시장은 해당 회의 결과에 안도 했었음. 12 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기 전까지도 시장에서는 2024 년이 양적 긴축 시작시점으로 전제했지만, 금번 의사록에서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으며, 양적 긴축도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한다”는 논의가 나왔다는 점이 시장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핵심 원인.

과거 양적긴축은 2015 년도 12 월 금리 인상 이후 약 2 년 넘은 시점인 2017 년 10 월부터 월 100 억달러 규모로 진행됐었음(양적긴축 종료는 2019 년 9 월, 해당기간 연준 자산 규모 변화 4.5 조달러→3.8 조달러). 그러나 향후 양적긴축은 “양적완화축소→금리인상→양적긴축”의 기존 연준 정책 정상화 사이클과 동일하게 진행하면서도, 과거처럼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이미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평균인플레이션목표치(AIT)를 적용시키더라도 2% 목표에 도달했으며, 고용시장도 완전고용에 근접해가고 있는 만큼 연준의 정책 정상화 사이클은 당연한 수순. 그러나 생각해볼 점은 (의사록에서도 나와있듯이), 연준의 정책 결정은 지표의존적, 데이터 후행적이라는 사실. 12 월 ISM 제조업 PMI 나 뉴욕 연은에서 공개한 글로벌 공급압력 지수는 공급난이 정점에 달했음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추후 인플레이션 급등세가 완화됨에 따라 연준의 정책 속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 12 일(수)에 발표 예정인 미국의 12 월 소비자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인플레 정점)과 경계감(인플레 지속)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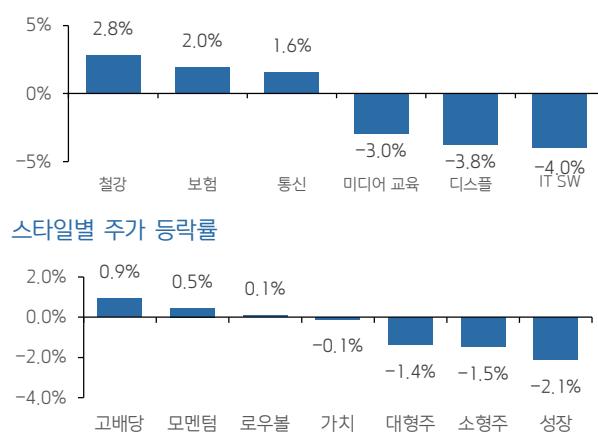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에 따른 미국 증시 급락 충격, 원/달러 환율 상승 부담 등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지난 해 배당락 이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한 배당차익거래 성격의 현물 매도세가 최근 국내 증시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가해왔다는 점도 부담요인. 다만, 해당 물량의 청산은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연준의 긴축 강화 불안에도) 글로벌 공급난 완화 기대감 상존, 미국 증시와 달리 고점 부담이 크지 않은 국내 증시 상황 등을 고려 시 전체적인 하락 압력을 제한될 것으로 기대.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